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5호 [주체 제23257호] 주체99 (2010)년 11월 1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지!

사설

## 당대표자 회정신을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앙양을 일으키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사적인 당대표자 회정신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경축할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대고조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열린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항도적력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나가는 획기적의의를 가지게 된 중대한 정치적사건으로 되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 단계를 반영한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승리의 기세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나가기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의 시대는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이 일떠서는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이며 주체혁명위업이 전면적으로 완성되어나가는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사적인 당대표자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경축할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대고조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열린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항도적력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나가는 획기적의의를 가지게 된 중대한 정치적사건으로 되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 단계를 반영한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승리의 기세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나가기 한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사적인 당대표자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경축할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대고조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열린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항도적력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나가는 획기적의의를 가지게 된 중대한 정치적사건으로 되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 단계를 반영한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승리의 기세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나가기 한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사적인 당대표자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경축할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대고조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열린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항도적력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나가는 획기적의의를 가지게 된 중대한 정치적사건으로 되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 단계를 반영한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승리의 기세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나가기 한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사적인 당대표자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경축할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대고조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열린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항도적력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나가는 획기적의의를 가지게 된 중대한 정치적사건으로 되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 단계를 반영한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승리의 기세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나가기 한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사적인 당대표자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경축할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대고조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열린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항도적력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나가는 획기적의의를 가지게 된 중대한 정치적사건으로 되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 단계를 반영한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승리의 기세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나가기 한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사적인 당대표자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경축할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대고조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열린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항도적력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나가는 획기적의의를 가지게 된 중대한 정치적사건으로 되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 단계를 반영한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승리의 기세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나가기 한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희망찬 래일을 향하여

##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새겨주어

경공업부문의 현지지도단위 당조직들에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맞이한 경공업부문의 현지지도단위 당조직들이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대고조제로 적극 추동하는 령도업적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올해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도를 받은 경공업부문의 수많은 단위 당조직들이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기쁘게 벌려나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생명이니 받들어주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하고수호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공장을 찾아주신 송고한 뜻을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가슴깊이 새겨안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가고 있다.

이곳 당조직의 일군들은 현지지도도의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돌아보신 연혁소 개설에 대한 참관사업을 계획성있게 조직하여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아버지수령님 그대로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지니신 장군님의 위대성을 뜨겁게 새겨안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누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돌려시는 수도도시민들의 생활현황에 적극 이바지할 불같은 일념을 안고 일해가도록 실천속에서 잘 이끌어주고있다.

삼지연장공장 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사적을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깊이 체득시키는데서 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부채 높여나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군대 인민들과 당사자들에게 맞췄고 열양가능은 갖가지 기초식품들을 더 많이 안겨주시기 위하여 마비현 현지지도도의 길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를 초급일군들부터 가슴깊이 새겨안고 대중속에 들어가 심금을 울리는 교양사업들을 하도록 하고있다.

## 도소재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도소재지인 해주시를 선군시대의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리기 위한 용이 큰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종합관료주요에 의하면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해주시개건보수공사업에 달려온 도급기관, 기업소들과 시, 군일군들, 돌격대원들이 많은 대공사들을 힘있게 다그친데로 백수십동의 당지근 공공건물과 아파트들의 외벽미장작업이 마지막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백두산위인들의 송고한 자축이 어려웠던 해주시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낙원의 도시로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대담하고 용이 큰 목표를 세웠다. 도에서는 그 수행을 위해 해당부서 당, 행정책임일군들로부터 연락지휘부까지 조직하고 그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연합지휘부에서는 설계와 시공, 대상별자재보장대책을 적극 따라세우는 것과 함께 단위별로 공사실적과 절경가를 실속있게 진행하면서 모범적인 단위들을 적극 소개일반화하였다. 도의 책임일군들과 지휘부일군들은 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가 화선식정체사업들 진행속에서 돌격대원들이 발휘하는 열정적인 투쟁을 격려하고 선진적정체사업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공사를 성과적으로 밀고나가

도록 하고있다. 공사장에 혁신의 기상이 새차게 나타났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려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송고한 뜻을 받들고 도급기관, 기업소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제일 덩치 큰 고층아파트들을 맡아 드세한 공격전을 벌였다. 특히 도당위원회의 도인민위원회, 도수해건설부 비롯한 도급기관, 기업소들 그리고 해주시 당위원회와 시민위원회, 해주제분공장을 비롯한 시급기관, 기업소들까지 애국의 맘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해주시당위원회, 도시로일용공업관리국, 도수해건설부 비롯한 도, 시급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완성미장을 마지막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배천군을 비롯한 여러 군의 돌격대원들도 개건보수공사업에서 애국의 맘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 대고조전투장의 새 소식

과학기술로 진척이 돌파구를 열어간다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인민경제의 4대선행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명의 원바람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선 모범을 보이고 이신작지양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은 사업에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전개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는 한편 후방사업을 당조직의 뒷모서리로 여기고 걸린 문제를 앞질러 풀어나감으로써 종업원들의 생산열의를 최대한으로 높여주고있다.

이밖에도 기계기초식품공장, 평양복합공장을 비롯한 여러 용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찾아주신 경공업부문의 단위 당조직들에서는 장군님의 불멸의 현지지도사적을 통한 업적을 힘있게 실천하게 하고있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후방사업을 잘해내며 하에서 더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밀고가고있다.

## 도소재지를 사회주의선경으로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도소재지인 해주시를 선군시대의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리기 위한 용이 큰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종합관료주요에 의하면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해주시개건보수공사업에 달려온 도급기관, 기업소들과 시, 군일군들, 돌격대원들이 많은 대공사들을 힘있게 다그친데로 백수십동의 당지근 공공건물과 아파트들의 외벽미장작업이 마지막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백두산위인들의 송고한 자축이 어려웠던 해주시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낙원의 도시로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대담하고 용이 큰 목표를 세웠다. 도에서는 그 수행을 위해 해당부서 당, 행정책임일군들로부터 연락지휘부까지 조직하고 그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연합지휘부에서는 설계와 시공, 대상별자재보장대책을 적극 따라세우는 것과 함께 단위별로 공사실적과 절경가를 실속있게 진행하면서 모범적인 단위들을 적극 소개일반화하였다. 도의 책임일군들과 지휘부일군들은 돌격대원들속에 들어가 화선식정체사업들 진행속에서 돌격대원들이 발휘하는 열정적인 투쟁을 격려하고 선진적정체사업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공사를 성과적으로 밀고나가

특파기자 리승철



승리의 신심드높이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 금강제전기기관차제조기업소에서 -

정론

신념과 영광의 붓대

조선로동당의 당기에는 붓대가 있다. 백두의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마치고 닳고 함께 아로새겨진 혁명의 붓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신 폭풍같은 환호성이 온 세상을 뒤흔들던 9월의 그 열기와 정국광명의 단상우에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을 우러리며 천만 가슴이 터질듯 부풀어오르던 10월의 그 기세로 더욱 높이 추켜든 우리의 긍지 높은 붓대이다.

혁명과 언론, 당과 붓대가 백전백승이라는 하나의 운명으로서 이어진 이 땅에 향도의 당을 따라 천만년 팔자고 가고갈 맹개자 용암처럼 끓어넘친다.

당이어,

그대의 붉은 기폭에 영원한 주소를 정한 혁명의 동행자들은 2월의 정기가 어렁 그 발걸음따라 신념의 붓대를 역세게 틀어쥐고 위대한 김일성조선의 창조한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다.

1

혁명의 동행자는 사상의 동행자이다. 우리 혁명의 붓대역사는 위대한 당과 사상을 같이한 동행자의 긍지높은 역사이다. 사상의 동행자!

여기에 당과 뿌리도 하나, 뜻도 하나, 력사도 하나인 조선의 붓대의 비길대없는 영광이 있고 력사적인 무게가 있다.

조선과 민족앞에 댄뎃하고 시대와 세계 앞에 당당한 우리 붓대의 자존감과 배경이 여기서 뿔어나오고 바로 여기서 당의 정치사상적지를 철벽으로 지켜낸 승리의 영예가 넘쳐흐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에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지하면 사상의 위력은 붓대에 의하여 담보된다.》

훌륭한 사상이 있고 조직이 있어도 혁명적인 힘이 없으면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어비이수령님께서 수백만 대중을 향해 동일한 사상과 투쟁구호를 일시에 신속하게 전개하여 대중을 결속시키고 그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시키는데서 출발함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 수단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항일의 나성영을 김정숙어머님께서도 당대의 창조를 보고 또 보시며 이것은 우리 당의 창조와 함께 김일성장군의 력사적인 위업의 자랑찬 승리로 뿔어나고 커경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어비이수령님의 력사적인 개신연설을 듣는것으로부터 내 나라의 첫 전과를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새 조국건설의 노래를 얼마나 우렁차게 불렀던가.

사상의 동행자는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이며 투쟁과 승리의 고무적기적이다.

정의와 진리, 이는 우리 붓대의 맑은 눈빛이고 피끓는 심장이다.

투쟁과 승리, 이는 우리 언론이 숨쉬며 사는 방식이고 목적이다.

당과 수령이 있고 정의와 진리, 투쟁과 승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붓대가 있었다.

온갖 투쟁이 범람하고 허위의 거품들이 력사의 대하우에 돌고 떠날때 우리 당의 붓대는 정의와 진리의 포성으로 자주시대의 거창한 흐름을 주도하였으며 력사의 초행길을 파갈때 헤쳐 조선로동당이 승리하는 년대기, 김일성조선이 빛나는 세기를 펼치었다.

제국의 난파 《전체 조선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지, 승리의 기지름놀이 들라!》고 호소하신 어비이수령님의 격동적인 방송연설을 인민의 가슴속에 안겨준것도 우리의 언론이었다. 전조가에는 파동을 팔면 고함소식을, 후방에는 전선의 승전소식을 뒤얹어 전해 온 나라를 흥청위흥케로 떠민 보이지 않는 힘도 붓대의 위력, 사상의 위력이었다.

우리 당의 백전백승사는 이렇게 흘러왔다.

1960년대에 미국의 도발에 대한 조선의 용감한 대답이었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에는 전면전적으로!, 우리 당의 이 담대한 배짱과 기개는 우리의 지면우에서, 우리의 전과를 타고, 우리의 마이크로 전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갔다. 뜻이 있고 덩이 있는 언론이라면, 정의의 열망하고 진리를 말하는 문필가라면 온몸을 부시며 뛰어들지 않을수 없었던 혁명의 대하였다.

우리 당이 언제나 정의이고 진리이기에 배심이 든든하였고 우리 당은 곧 승리이고 영광이기에 전인민당의 길을 헤쳐나간 면서도 그 목소리는 실로 당당하였다.

사상전지의 힘있는 나팔소리와 함께 북구건설의 대교향악이 울리고 사회주의철타리가 나래쳐올랐다. 인간개조의 선구자들이 더 많이 배출되고 긍정이 긍정을 낳고 위훈이 위훈을 낳는 변혁의 시대가 펼쳐졌다.

안팎의 온갖 원수들과의 심각한 투쟁에서도, 시대와 교조를 뿌리째는 사상전선에서도, 소극과 보수를 불사르는 창조와 위훈의 전투장에서도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길발은 언제나 당과 한마음, 한뜻이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의의 수호자, 승리의 향도자인 당의 빛말이었다고 투쟁의 친근한 길동무였으며 나날이 전진하는 조국의 기상이었다.

사상의 동행자는 순결성과 불변성을 생명대로 귀중히 여긴다.

진합없이 추주쳐오르는 동행자의 신념과 열정도, 당에 심장을 맡기고 세계를 굽어보는 그 기상과 자존심도 순결성과 불변성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1970년대의 대진군의 복소리가 지금도 메아리쳐온다.

백두의 숭경로 고동치는 이 땅우에 주재위업제승의 장쾌한 해돋이를 온 나라에 펼친 그 격동기에도, 로동당시대의 눈부신 전성기에도 우리의 붓대가 새겨온 긍지높은 자국이 있다.

백두산봉우와 함께 우리의 붓대는 선군혁명의 승리의 한 페이지를 뚜렷이 장식하였다.

수령님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 장군님께서 온몸을 바쳐갈 때 그에게 힘이 되고 마음의 힘이 되어준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한자한자가 우리 장군님의 피더운 총명과 불덩이같은 예극의 의지였고 한마디한마디가 붉은기의 세찬 피더운소리였던 신념의 지면과 화면들을 보면서 천만의 대오가 피논물의 바다에서 용양 일떠섰다.

혁명의 첫 기폭에서 《조선의 별》과 같은 송가로 민족의 태양을 응원하고 안팎의 원수들이 준동할 때에는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온 나라에 더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한 그 신념의 력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더 높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포섭없는 전쟁은 정치사상의 대결, 신념과 의지의 대결이며 여기서 붓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세기를 이어가는 반제반미대전결에서 우리의 붓대는 사상적기이 무한대인 공격력과 백발백중의 명중률로 원수의 야성적 사상의 불소나기를 피꾸우며 자본주의의 위를 깔려 숨어든 온갖 어지러운 바람들을 가차없이 쳐물어냈다.

지구의 한쪽에서 자기를 풀어주고 키워준 당과 사회주의를 앞장서서 힘쓰고 신념들이 묵숨으로 개척한 위업을 한조박의 랑심도 없이 말아먹을 때 불변의 우리 붓대는 사회주의붉은기, 선군혁명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었다.

우리는 당의 영원한 동행자!

심장의 피는 이렇게 떨려 뿔어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이 자랑스런게, 댄뎃하게, 힘차게 온 세상에 소리높이 울려 퍼지게 하였으며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단결을 동동치와 같이 지켜냈다.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봉화들이 료현의 불길마양은 나라에 타번졌다. 이 땅우에 CNC바람, 최첨단들과의 열풍이 더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에 불을 지펴주었다.

세기는 조선에서 사상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하는 자랑한 현실을 부러운 눈길로 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두의 영웅사상을 창조하게 한 우리 붓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재부로 되고있다고 힘있게 선언하시었다.

당의 믿음직한 동행자—조선의 붓대! 그것은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위대한 혁명을 추동하는 무궁무진한 힘이며 백구기보다 더 위력한 조선의 정치사상적무기이다.

2

심장으로 따르는 행복의 천만리이다.

철세의 위인들에게 심장으로 메혹되고 위대한 당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장구하고도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을 걸어나 동행자들의 빛나는 력사이다.

일찌기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한사람의 혁명동지, 열렬의 지식인정신을 찾아 기억만이라도 오무막으로 멀고 험한 길을 헤쳐 가시던 그날의 이야기 오늘도 천만의 심장을 울리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새날》, 《불새위크》, 《3. 1월간》, 《서평》...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로정우에 뜻있게 새겨져 빛나는 이 추억같은 혁명적출판물의 제호들이 오늘날 장렬한 여운으로 력사의 벽을 쿵쿵 울리는것은 정녕 무엇때문인가.

조선혁명의 행군길은 그 시작부터 위대한 수령과 붓대전사들이 심장의 피줄을 이고 함께 걸어나 영광스러운 길이었다.

하기에 해방직후 어비이수령님께서 우리 당의 기관지가 첫 고고성을 울렸을 때 이것은 몇개 사단의 병력을 가진것보다 더 큰 위력을 나타낼것입니다! 라고 하시며 이처럼 기뻐하시었다.

수천수만의 총대대와 맞먹는 또 하나의 힘있는 우리 당 사상전선의 전초병, 동행자의 대오가 탄생한 력사적인 순간이었다.

고급동서에는 붓대와 언론에 대한 가치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있다.

태양찬가가 울리는 백두산하늘아래의 이 땅에서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든 동행자들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행복의 상상부에서 서있다.

희세의 위인이신 우리의 김정일동지, 그이는 온몸으로 따르고 심장으로 받들고 싶은 위대한 스승이시고 자재로운 어비이시이다.

이 땅우에 영원히 태양의 력사가 흐르게 하시고 수령영생의 세계적인 위업을 가장 빛나게 실현하신 그런 위대한 령도자가 없었었다.

위인을 알고 위인세계에 온몸으로 메혹된다것은 참으로 행복하고도 긍지높은 것이다.

어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불멸의 기지로 높이 드시고 이 땅우에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통상변명의 새시대를 펼쳐준 위대한 사상과 령도, 그 하늘같은 업적을 우리를 때 우리의 가슴은 얼마나 크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벅차오르는가.

선군의 총대를 역세게 틀어쥐우고 주체의 붉은기와 사회주의 우리 세상을 굳건히 수호해주셨으며 조선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강대국으로 우뚝 세워주시신 천덕무적의 선군명장을 우러를 때면 그 위대한 력사, 그 빛나는 년대기들을 세상 어 소리쳐 웨치고싶은 심장의 총동을 억제할수 없다.

태양의 해발처럼 눈부신 그 에지를, 백두산의 웅지와 무개가 실려있는 그 기상과 담력을, 봄날처럼 따사롭고 자애로운 그 거룩한 인간의 향기를 미숙하게나마 붓에 담고 전과에 실을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성스럽고 자랑스러운것이겠는가.

따를수록 심장이 꺾이고 받들수록 긍지가 하늘땅에 차넘치며 고난과 시련의 언덕에서 그 위대함이 더욱 사무치게 온몸을 파고드는 바로 이 매혹이 우리가 틀어잡는 붓대의 뿌리이고 바쳐도 진합없는 불타는 열정의 열원이다.

지식인의 심장은 누구나 열수 있는것이 아니다.

정의와 진리를 말하는 붓대에 사상과 신념이 재워질 때 것처럼 힘있고 위력한 것은 없다.

어렵고 고간한 날에 더 잘 알게 되고 그 위대함에 다시, 또다시 마음이 끌리어 밤이 지새는줄도 모르고 격정의 피를 끓이던 그런 날들이 신념과 영광의 천만리로 이어졌다.

어비이수령님을 잃은 피논물의 언덕에서, 고난과 시련의 사선철타리 폭풍우속에서 신념의 동행자들은 무엇을 보고 과연 무엇을 그리도 긍지높이 시대와 력사의 한복판에 힘차게 새기었던가.

매혹은 심장을 낳았고 신념은 더 높은 영광의 언덕에 서게 하였다.

우리 장군님 해쳐오신 오성산이며 철명의 아슬아슬한 칼벼랑길들에서, 구운갑자 두달로 끼니를 에우고 현치지도의 길 이어가신 대홍단산리들의 식을줄 모 르는 모닥불처럼 제대군인부부의 새살림을 축복해주시며 몸소 만저포시 수천마음을 돌이켜서 목매어 새기고 또 새긴것은 정녕 무엇이었었는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 로고와 헌신이 알알이 열매로 맺힌 원홍벌의 사과바다며 장군님 그리는 뜨거운 마음들이 파도쳐 실배는 미풍들의 가을 풍경,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나날이 놓어나는 선군민정앞에서 우리의 구갈, 우리의 목소리는 얼마나 힘있고 긍지에 넘치었던가.

장군님은 민족의 운명, 조국의 미래, 김일성조선의 영원한 존엄과 승리! 장군님 따르는 길은 조국과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안아오는 행복의 천만리! 가치도 꾸밈도 필요없었다.

우리 장군님의 사상과 신념, 사랑과 헌신의 세계에 매혹되어 가슴속에 차넘치는 불덩이같은 심장의 로를 쏘면 그대로 격조 높은 글썩이 되고 더욱더 굳세어지는 불변의 맹세 옮겨놓으면 달아온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강산을 진감하던 격동의 날과 말들이 이 땅우에 굽어쳐흘렀다.

사상과 신념을 함께 하는 동지들의 세계는 혈연의 정과 사랑으로 하여 더욱 굳건하고 위력하다.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사에는 혁명의 수령들과 이름난 문필가들사이의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있다.

동무들이 나를 그러워하듯이 나도 동무들을 그러워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붓대사랑입니다. ...

축복의 환율이 강산에 내려썰이던 어느 해 설날, 우리 장군님 사랑하는 문필진사들앞에서 뜨겁게 러놓으신 이 심정의 말씀.

혁사의 그 어느 갈피에 붓대를 전사자들이 령도자와 동지가 되고 전우가 되어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고 혈연의 정을 나누며 사선철타리, 존엄한 혁명의 천만리길을 신장과 심장을 하나로 이고 헤쳐온 이런 불같은 동지들의 세계가 있어보았는가.

우리 장군님의 붓대중시사상은 이 땅우에 투철한 동지의 세계를 받았다.

우리의 붓대에 사상과 신념의 피줄기를 이어주시고 사랑과 정을 풀었이 부여주시며 존엄한 혁명의 천만리길을 일직적인 동반자가 아니라 영원한 동행자로 끝까지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혁명의 어머니의 뜨거운 손길, 이것이 바로 조선혁명의 력사우에 총대동지의 대오와 함께 붓대동지의 대오를 엄숙히 정렬시킨 위대한 기적의 원천이다.

끝없는 사람들을 내세워주고 아끼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라고 하시며 문필가들이 쓰는 한편한편의 글들을 조국과 혁명에 바치는 열정과 헌신의 창조물로 귀중히 여겨주시고 온 세상이 보란듯이 빛내여주시는 고마운 삶이 스승.

시련의 나날에 창작된 한편의 기사를 두고 조국이 어려움을 겪던 때에 수천만의 식량을 대신한 좋은 글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높이 평가해주시고 때로는 문필가들이 더 좋은 글을 써낼수 있도록 하느니, 배급도 열어주시며 선군의 산악 오성산에도 담겨주 세워주시던 어비이 그 믿음과 사랑.

그 품속에서 조선의 붓대 정의를 력사를 주도하고 인류사추위의 승리와 미래를 확신성있게 선도하는 이 세상 가장 긍지높고 정의로운 혁명의 필봉으로 시대의 한복판에 거연히 솟아오르지 않았던가.

백두산장군들의 슬하에서 영원한 동행자의 승리의 력사가 흘러왔으며 그 위대한 혼연일체의 천만리와 더불어 주체혁명 위업은 계속 앞으로만 전진할것이다.

3

정의와 승리를 위하여!

백두의 기상 넘치는 향도의 빛발따라 척척히 발구름드높이 석씩하게 나아가야 할 성스러운 사랑감이 붓대의 심장을 더욱 세차게 굽어 한다.

지구의 한복판에 정의의 성새로 높이 솟은 백두산악에 붓끝을 버리고 수령님의 소년, 인민의 혈연안고 굽어쳐흐르는 소백수 푸른 물에 진리의 붓을 적어 더 거세게, 더 높기차게 총진적의 복소리를 울리자.

우리 당의 붓대는 어비이수령님 열어주시고 위대한 장군님 이끄시는 주체의 길, 사회주의 길에서 추호도 내왕도 모르는 사상의 절결한 운호자이며 정의와 진리의 힘있는 대변자이다.

조선의 붓대는 우리의 백두산장군은 곧 정의이고 승리이며 당과 함께 가는 길에 행복과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굳게 믿는 신념의 해발이다.

새물은 흘러 세대는 바뀌었다.

김혁, 리동백, 림춘추, 최경화, 최일민...

혁명의 첫 기폭에서 수령결사옹위의 붓대를 계주봉으로 넘겨준 세대들의 뒤를 이어 신념의 력사는 맥백히 흘러왔다.

청춘을 서슴없이 죽음앞에 내대면서 러치던 한별 민세의 웨침, 불비속을 달려오던 그 오직 장군님 안념만을 생각하던 시절엔 그리움, 자기의 령도자를 전심으로 받들어 붓을 달리고 또 달려오던 그 열정의 밤들...

하늘땅이 비리나 해도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를 심장의 붉은 피를 다 바쳐 옹위하고 만들어내갈 이 의지는 영원할것이다.

우리의 붓대는 자기의 위력을 믿는다. 세계가 굽고 허위를 짓부셔버리고 자주적존엄과 민족의 영예를 만천하에 파시 해는 우리의 붓대는 온갖 력사의 반동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고 우리 당만세, 사회주의 만세소리를 지구천지에 더 파곳하게 울릴것이다.

한때 정의와 진리의 전초선에 서있던 붓대들이 자본주의의 달콤한 향기에 넘어가 나중에는 반동들에게 리용당하고 사회주의와 자기 운명에 치욕을 남긴 력사의 교훈은 참으로 심각하다.

신념도 없고 랑심도 없는 언론은 수치이며 죽음이다.

인민의 령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인 철세의 위인 우리 장군님을 하늘땅 끝까지 우러러받고 인민의 삶의 의욕인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노래하는

동행자들의 신념의 길은 더욱 곳곳이 이어질것이다.

정의 웨침, 진적의 복소리는 공격전이다.

삼지연대기념비공상의 전근나팔수! 이 영웅적공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실로 고무적이다.

자기 땅에 밟히고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걸음을, 백걸음을 내걸으며 세계에 돌진해나아가는 강성대국건설대진이 강한 인민의 용감한 공격전이다.

우리 혁명은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강산을 통째로 드르릉 울리는 사상의 우뢰이다.

위대한 시대, 위대한 혁명, 위대한 력사가 엄숙한 사랑감을 안겨주었으며 민족과 세계앞에 가장 영웅적이고도 격조적인 인민의 투쟁을 바로 우리 붓대가 기록하고있다.

그 품속에서 조선의 붓대 정의를 력사를 주도하고 인류사추위의 승리와 미래를 확신성있게 선도하는 이 세상 가장 긍지높고 정의로운 혁명의 필봉으로 시대의 한복판에 거연히 솟아오르지 않았던가.

백두산장군들의 슬하에서 영원한 동행자의 승리의 력사가 흘러왔으며 그 위대한 혼연일체의 천만리와 더불어 주체혁명 위업은 계속 앞으로만 전진할것이다.

그 품속에서 자력경쟁의 강자로, 시대의 영웅으로 성장한 인민이 더 용기백배하여 창조와 변혁의 산물들을 일으킬수 있게 신심과 사기를 북돋아주고 무한한 힘과 열정을 안겨준다.

붓대는 언제나 정의를 대변해야 하며 인민의 마음속에 신념의 기능을 굳건히 세워주어야 한다.

세상을 둘러보면 인류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케번과 허위의 목소리들이 어지럽게 범람하고있다.

인민을 기만하고 력사의 흐름을 오토하는 온갖 잡사상들이 자기의 본색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있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조선은 등대처럼 세인의 눈길을 끌고있다.

우리가 걷는 주체의 길보다 더 위대한 정의의 길은 없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기상과 목소리보다 더 당당한 진리의 선언은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사상적공세로부러 이 정의로운 세계를 수호하고 인류가 희망으로 바라보는 사회주의조선의 모습을 더 활력있게, 더 자랑스런기 빛나게 하는 력사가 부여한 신성하고 책임적인 사명이기도 하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의 기치가 지구천지에 뿔발치고 선군조선의 승리의 발걸음소리가 대륙만리를 더 요란히 뒤흔들며 사상과 신념의 포성을 세차치게 울리자.

조국과 혁명의 력사에서 위대한 전향의 격동이가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총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력사적인 사변과 함께 강성대조선의 무궁창창한 미래를 열어주는 21세기의 대풍운이 려다.

세계가 굽고 온 나라, 온 민족이 한화로 파도치고있다.

어비이수령님과 함께 첫걸음을 댈 주체혁명의 행군길을 위대한 장군님 따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온 우리 근대와 인민의 장군님뒤리에 천백백도 굳게 뭉쳐 선군조선의 새시대, 새 력사를 창조해갈 드높은 열의와 신심에 넘치었다.

백두밀밭에서 시작된 동행자의 종군길은 끝까지 않았으며 1970년대 찬란한 향도의 붉은 노을은 온 강산에 받들어올린 그 신념의 전통을 이어 세 세기의 미래를 펼치는 우리 당의 나팔소리를 힘차게 울려갈것이다.

위대한 당과 함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리동찬, 방성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알좌자이르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 11월 31일 평양

회상기 학습을 실속있게

토산군 수합리당위원회에서 는 당원들과 동장원들속에서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대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회상기 학습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을 혁명파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해나가기로 작구 되밀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부러가 회상기에 담겨진 내용을 환히 깨닫고 들끓는 작업장으로 나가 항일유격대식으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일군은 작업의 일환에 항일 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 《결승의 신념》에 대한 실토모임을 진행하였다.

그는 항일혁명 투사들은 그 어떤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사령관동지께서 계시면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다고 감동있게 이야기 하였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회상기 학습을 통하여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냈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본받아 경여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알로써 받아들일 드높은 결의를 다지면서 당면한 영농투에서 면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 있다.

로동동원 윤재영



항일의 전공에 높이 올리던 진적의 나팔소리 오늘날도 천만군민을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애로 힘있게 부른다. - 삼지연대기념비에서 -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우리 혁명은 총대와 함께 사상의  
위력, 붓대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하  
는 세력의 위업이다.

세상에 우리 당의 혁명적출판  
보도물처럼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진자, 총심한 대변자로  
서 당중앙을 옹위해가는 출판보도  
물은 없다.

준엄한 시련의 언덕을 수없이 넘  
고 헤쳐나서 단 한번의 탈선이 없  
나 변색도 없이 자기의 수명을 결  
사용위해는 우리 당출판보도물의  
자랑스러운 역사에는 일찍부터 총  
대와 함께 붓대의 역할을 깊이 통  
찰하고 붓대를 당을 옹위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무기로 내세운 백두산위인들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선군정치를 받드는데서 붓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이다.》

력사는 이미 사회를 개조하고 발  
전시키는 데 혁명적출판물이 얼마  
나 큰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확  
증하였었다.

우리 당의 붓대중시사상은 항일  
혁명투쟁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혁명의 개척기에 벌써 출판,  
언론활동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날》신문을 비롯한 혁명적출판  
물들을 창간하시었으며 간고한 항  
일무장투쟁속에서도 수많은 혁명적  
출판물을 발간하시어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조국해방전쟁으로 불러일으키시  
었다.

그 나날 혁명적출판물을 총대와  
함께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의 하  
나라 보고서 《3.1월간》, 《서방》,  
《종소리》, 《철철》을 발간하시어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 총대와 함께 사상의 위력으로 언제나 승리를!

창조하신 우리 수령님이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가 저들의 식  
민지통치에 장애로 된다고 생각되  
는 모든 언론활동을 총칼로 가지었  
이 짓궂게버리던 그 시기 혁명적출  
판물을 발간하여 《붓대》의  
위력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을 각성  
시켜 혁명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따  
라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  
나 싸우는 백두의 영웅사사를 창  
조하게 한 붓대의 자랑스러운 전  
통, 우리 혁명의 고귀한 재부로 대  
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피어린 항일의 나날에 마른하  
심 혁명적출판물의 깊고도 역센 뿌리  
에 기초하여 해방후 당을 창간하신  
후 지체없이 《정로》를 발간하도  
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자 분이 우리 당의 혁명투쟁  
에서 항상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진자, 총심한 대변자로서 당중  
심을 옹위해가는 우리 당보의 높은  
준엄이 있음을 더욱 깊이 절감하  
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이른덧 65년이라는 오랜 세월  
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는  
당보의 창간을 두고 붓대 기뻐하시  
며 당보가 명실공히 당의 힘입은  
일무장투쟁속에서도 수많은 혁명적  
출판물을 발간하시어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조국해방전쟁으로 불러일으키시  
었다.

그 나날 혁명적출판물을 총대와  
함께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의 하  
나라 보고서 《3.1월간》, 《서방》,  
《종소리》, 《철철》을 발간하시어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  
해방후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정로》가 선전활동에서 계급투  
쟁의 날을 세우고 날카로운 사상쟁  
을 벌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  
히 옹호고수하게 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당보를 읽으  
시는 일로부터 하루일과를 시작하  
시었고 사설이나 논설뿐 아니라  
자그마한 보도기사까지도 일일이  
보아주시며 지도하여주시었다. 어  
떤 날에는 자정이 지난 깊은 밤에  
전화를 거셔서 오늘 당보에 실린  
어느 기사는 잘못되었고 어느 논설  
은 잘 쓰지 못하였다고 깨우쳐주시  
기도 하시며 또 어느날에는 친히 당  
보편집을 나오시어 기자, 편집원  
들에게 당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어버이 항일의 높은 뜻을  
받들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정로》를 단  
순히 사담물에게 소 소를 전하는  
평범한 신문이 아니라 대중을 민주  
조선건설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사상투쟁무기로 되게 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판보도부만 일군들  
을 만나시고 당보를 비롯한 혁명적  
출판보도물의 중요성에 대하여 거  
를 강조하시면서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을 선전하고 옹호하는것을 첫째가  
는 본분으로 하여야 한다. 통신사  
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로선과  
정책을 내외에 선전하고 옹호하는  
기관으로 되어야 한다. ...  
우리 당출판보도물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의 출판보도물로!  
바로 이것이 김정숙동지께서  
우리 당출판보도물을 첫걸음을  
매단 시기에 기자, 편집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신 신조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그뜻  
은 언제나 당보에 실렸으며 주체  
63 (1974)년 5월 7일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어 우리  
당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  
투쟁무기로는 고전적정신으로 붓  
대의 지위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  
세우신 정령이신 우리 수령님  
에게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다할수 없을 자랑이다.

우리 혁명의 고귀한 재부로 되  
고 있는 붓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오늘도 한분의 위대한 정치원리  
인정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  
어 더욱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혁명투쟁에서 언제나 붓대를 중  
시하라!  
문필가들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내세우라!

새기면 새길수록 총대와 함께  
붓대의 위력으로 언제나 승리를  
벌어주시고 언제나 선군명장의  
업적이 뜨겁게 안겨온다.

우리 당을 명도하시는 첫 시기  
부터 붓대와 마르크스 혁명고  
고에서 노는 역할을 명철하게 깨  
달아주시고 보신정에서는 출판  
보도부에서 새로운 불질을  
올리시었다.

기자, 편집원들에게 언론의 참  
된 길을 밝혀주시고 글쓰는 묘  
미를 깨우쳐주시던 정령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방  
침

자로운 영상이 잊지 못할 나날들  
과 더불어 오늘날도 우리의 가슴  
을 울리고 있는 사상이니  
우리의 혁명적출판물을 내세  
워주시었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혁명위업계승을 위한 당의  
직사상적기조를 반석같이 다지고  
는 나라에 혁명의 불씨가 활  
을 올리려주게 하는데서 우리의  
출판보도물이 이룩한 공적은  
우리 당력사에 찬연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당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데서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진자, 총심한 대변  
자로서 당을 옹위하고 사회  
주의위업을 전진시키는 위  
력한 무기로 내세운 백두  
산위인들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보가 우리 당의 혁명적출  
판보도물인 동시에 우리 당  
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데  
서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  
진자, 총심한 대변자로서 당  
을 옹위하고 사회주의위  
업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무  
기로 내세운 백두산위인들  
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보가 우리 당의 혁명적출  
판보도물인 동시에 우리 당  
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데  
서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  
진자, 총심한 대변자로서 당  
을 옹위하고 사회주의위  
업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무  
기로 내세운 백두산위인들  
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보가 우리 당의 혁명적출  
판보도물인 동시에 우리 당  
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데  
서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  
진자, 총심한 대변자로서 당  
을 옹위하고 사회주의위  
업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무  
기로 내세운 백두산위인들  
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에도 그이께서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견결  
히 옹호고수하는 사상적기수로  
우리 기자, 언론인들을 내세  
워주시었다.

당보에 사실혁명의 봉화를 지  
켜 올리시니 신문에 혁명, 보도  
혁명, 방송혁명, 출판혁명  
이라는 령어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당시 당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데서 훌륭한 교양  
자, 대담한 선진자, 총심한  
대변자로서 당을 옹위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무기로 내세운 백  
두산위인들의 거룩한 자욱  
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보가 우리 당의 혁명적출  
판보도물인 동시에 우리 당  
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데  
서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  
진자, 총심한 대변자로서 당  
을 옹위하고 사회주의위  
업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무  
기로 내세운 백두산위인들  
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보가 우리 당의 혁명적출  
판보도물인 동시에 우리 당  
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데  
서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  
진자, 총심한 대변자로서 당  
을 옹위하고 사회주의위  
업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무  
기로 내세운 백두산위인들  
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보가 우리 당의 혁명적출  
판보도물인 동시에 우리 당  
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데  
서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  
진자, 총심한 대변자로서 당  
을 옹위하고 사회주의위  
업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무  
기로 내세운 백두산위인들  
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보가 우리 당의 혁명적출  
판보도물인 동시에 우리 당  
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데  
서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  
진자, 총심한 대변자로서 당  
을 옹위하고 사회주의위  
업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무  
기로 내세운 백두산위인들  
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맡을하시었다.  
훌륭한 글은 인민들을 당의 위  
업 수행에 힘있게 고무추동하  
여 인민들에게 당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사상적각오와 우리 시  
사회의 질을 고수하려는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게 하는 정  
신적력량으로 된다. ...  
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며  
사상적각오 없이는 사회주의  
의 이룩이 불가능하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보가 우리 당의 혁명적출  
판보도물인 동시에 우리 당  
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데  
서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  
진자, 총심한 대변자로서 당  
을 옹위하고 사회주의위  
업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무  
기로 내세운 백두산위인들  
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보가 우리 당의 혁명적출  
판보도물인 동시에 우리 당  
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데  
서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  
진자, 총심한 대변자로서 당  
을 옹위하고 사회주의위  
업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무  
기로 내세운 백두산위인들  
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보가 우리 당의 혁명적출  
판보도물인 동시에 우리 당  
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데  
서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  
진자, 총심한 대변자로서 당  
을 옹위하고 사회주의위  
업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무  
기로 내세운 백두산위인들  
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보가 우리 당의 혁명적출  
판보도물인 동시에 우리 당  
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데  
서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  
진자, 총심한 대변자로서 당  
을 옹위하고 사회주의위  
업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무  
기로 내세운 백두산위인들  
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보가 우리 당의 혁명적출  
판보도물인 동시에 우리 당  
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데  
서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  
진자, 총심한 대변자로서 당  
을 옹위하고 사회주의위  
업을 전진시키는 위력한 무  
기로 내세운 백두산위인들  
의 거룩한 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 당적출판물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키자

## 대중의 정신력발동의 중요한 무기로 들어주고

오늘 《로동신문》을 비롯한  
우리 당출판물들 대중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  
키고 그들을 강성대국건설로  
합히 추동하는 사상적무기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고  
있다.

백두산위인회 사업을 통  
해서도 당보를 비롯한 당적  
출판물들을 통한 교양사업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잘 알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은 당보를 통하여 매  
시각 활동방향과 임무를 전당  
에 제시해준다.》

당적출판물은 대중을 당정책  
관철에 힘있게 떠밀고 있는  
사상적무기로의 역할을 훌륭  
히 수행하자면 그 배포사업부  
리 지칠라게 짜고들어야 한다.

당적출판물을 통한 교양사업은  
군당위원회가 힘을 넣은 문제  
는 그 배포사업은 군당위원회  
적인 사업으로 들어주고나같은  
이른덧 《로동신문》이 대중  
에 신속히 전달되어 그들이 언제  
나 당의 슬결로 살며 일하도록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가 당적출판물  
배포사업에 깊은 주목을 돌려  
준 계기가 있었다.

언젠가 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추위속에 떨고있던 군  
당책임비서 남기훈동무는 한  
당원으로부터 이런 계기를

## 배전군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조직들과 당선선동부  
에서  
평원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에서  
이런 사업을 앞장섰다. 군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의  
승용차에 체중계가 갖추어지고  
체중계가 당적출판물배포정  
형이 상생히 기록되게 되었다.  
중요한것은 이 사업을 매일 생  
활화하고있는 것이다.》

책임일군들의 생활화된 이런  
기공은 군간의 당원들과 근로  
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은 군대 《로동신문》을 읽고  
그날사업을 시작하는 기공이  
확립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와 관련  
한 중요기사 《로동신문》에  
실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였다. 군당위원회 비서들인 김  
건영, 안호동동무를 비롯한 일  
군들은 이른 새벽 군당위원회  
내로갔다. 당보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읽고 제일  
먼저 거기에 위치한 체중계들  
에 내거기 배포하기 위해서였다.  
당보가 가지고 후원협동농  
장에 내려간 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농장원들에게 대표자  
회의와 관련한 기사를 읽어  
주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영  
광을 안고 평범한 영농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자고 호소  
하였다. 이에 고무된 농장원들  
은 한달의 날마다 해설이  
이제에 거두어들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결의안고

## 평원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조직들과 당선선동부  
에서  
평원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에서  
이런 사업을 앞장섰다. 군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의  
승용차에 체중계가 갖추어지고  
체중계가 당적출판물배포정  
형이 상생히 기록되게 되었다.  
중요한것은 이 사업을 매일 생  
활화하고있는 것이다.》

책임일군들의 생활화된 이런  
기공은 군간의 당원들과 근로  
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은 군대 《로동신문》을 읽고  
그날사업을 시작하는 기공이  
확립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와 관련  
한 중요기사 《로동신문》에  
실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였다. 군당위원회 비서들인 김  
건영, 안호동동무를 비롯한 일  
군들은 이른 새벽 군당위원회  
내로갔다. 당보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읽고 제일  
먼저 거기에 위치한 체중계들  
에 내거기 배포하기 위해서였다.  
당보가 가지고 후원협동농  
장에 내려간 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농장원들에게 대표자  
회의와 관련한 기사를 읽어  
주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영  
광을 안고 평범한 영농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자고 호소  
하였다. 이에 고무된 농장원들  
은 한달의 날마다 해설이  
이제에 거두어들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결의안고

## 신선정확한 배포와 선전선동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조직들과 당선선동부  
에서  
평원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에서  
이런 사업을 앞장섰다. 군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의  
승용차에 체중계가 갖추어지고  
체중계가 당적출판물배포정  
형이 상생히 기록되게 되었다.  
중요한것은 이 사업을 매일 생  
활화하고있는 것이다.》

책임일군들의 생활화된 이런  
기공은 군간의 당원들과 근로  
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은 군대 《로동신문》을 읽고  
그날사업을 시작하는 기공이  
확립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와 관련  
한 중요기사 《로동신문》에  
실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였다. 군당위원회 비서들인 김  
건영, 안호동동무를 비롯한 일  
군들은 이른 새벽 군당위원회  
내로갔다. 당보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읽고 제일  
먼저 거기에 위치한 체중계들  
에 내거기 배포하기 위해서였다.  
당보가 가지고 후원협동농  
장에 내려간 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농장원들에게 대표자  
회의와 관련한 기사를 읽어  
주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영  
광을 안고 평범한 영농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자고 호소  
하였다. 이에 고무된 농장원들  
은 한달의 날마다 해설이  
이제에 거두어들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결의안고

## 당보 학습을 생활화할 때

매일 아침 우리 당의 목소리  
가 담겨진 《로동신문》이 도  
착하면 철도성 3대수송사령원  
들이 일하는 방은 어느때였  
이 흥성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  
소식이 실린 신문이 오면 더욱  
그렇다. 우리 장군님께서 이번  
에는 또 어느 단위를 현지지도  
하시였는가,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단위들은 어디인가.

누구나 이런 흥분된 심정을  
안고 하루사업의 첫 일과를 당  
보 학습으로부터 시작한다.

당보 배부시서 정조홍동무는  
《당보 학습을 정상화하니 우선  
현지가 당의 의도하는 정책  
문제들과 활동방향에 제때에  
인감하게 도착할수 있으니  
좋고 또 그 요구에 맞게 3대  
수송조직과 지휘를 더 잘 짜고  
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울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라고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보 배부 제때에 보야  
야 당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  
요구대로 일할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당보에 《당의

## 철도성 3대수송사령당 세포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조직들과 당선선동부  
에서  
평원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에서  
이런 사업을 앞장섰다. 군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의  
승용차에 체중계가 갖추어지고  
체중계가 당적출판물배포정  
형이 상생히 기록되게 되었다.  
중요한것은 이 사업을 매일 생  
활화하고있는 것이다.》

책임일군들의 생활화된 이런  
기공은 군간의 당원들과 근로  
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은 군대 《로동신문》을 읽고  
그날사업을 시작하는 기공이  
확립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와 관련  
한 중요기사 《로동신문》에  
실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였다. 군당위원회 비서들인 김  
건영, 안호동동무를 비롯한 일  
군들은 이른 새벽 군당위원회  
내로갔다. 당보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읽고 제일  
먼저 거기에 위치한 체중계들  
에 내거기 배포하기 위해서였다.  
당보가 가지고 후원협동농  
장에 내려간 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농장원들에게 대표자  
회의와 관련한 기사를 읽어  
주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영  
광을 안고 평범한 영농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자고 호소  
하였다. 이에 고무된 농장원들  
은 한달의 날마다 해설이  
이제에 거두어들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결의안고

## 《로동신문》 소개관을 보게 될 것이야. 뜨락이나 들렀다가 는 것은 바람뿐이고 2명의 군 무선원밖에 없는 심산중에서 수십년간 나라의 통신초소들 목욕히 지켜온 초소장은 말했 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우리 에게 힘을 주는것은 당보

## 단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조직들과 당선선동부  
에서  
평원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에서  
이런 사업을 앞장섰다. 군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의  
승용차에 체중계가 갖추어지고  
체중계가 당적출판물배포정  
형이 상생히 기록되게 되었다.  
중요한것은 이 사업을 매일 생  
활화하고있는 것이다.》

책임일군들의 생활화된 이런  
기공은 군간의 당원들과 근로  
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은 군대 《로동신문》을 읽고  
그날사업을 시작하는 기공이  
확립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와 관련  
한 중요기사 《로동신문》에  
실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였다. 군당위원회 비서들인 김  
건영, 안호동동무를 비롯한 일  
군들은 이른 새벽 군당위원회  
내로갔다. 당보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읽고 제일  
먼저 거기에 위치한 체중계들  
에 내거기 배포하기 위해서였다.  
당보가 가지고 후원협동농  
장에 내려간 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농장원들에게 대표자  
회의와 관련한 기사를 읽어  
주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영  
광을 안고 평범한 영농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자고 호소  
하였다. 이에 고무된 농장원들  
은 한달의 날마다 해설이  
이제에 거두어들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결의안고

## 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조직들과 당선선동부  
에서  
평원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에서  
이런 사업을 앞장섰다. 군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의  
승용차에 체중계가 갖추어지고  
체중계가 당적출판물배포정  
형이 상생히 기록되게 되었다.  
중요한것은 이 사업을 매일 생  
활화하고있는 것이다.》

책임일군들의 생활화된 이런  
기공은 군간의 당원들과 근로  
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은 군대 《로동신문》을 읽고  
그날사업을 시작하는 기공이  
확립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와 관련  
한 중요기사 《로동신문》에  
실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였다. 군당위원회 비서들인 김  
건영, 안호동동무를 비롯한 일  
군들은 이른 새벽 군당위원회  
내로갔다. 당보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읽고 제일  
먼저 거기에 위치한 체중계들  
에 내거기 배포하기 위해서였다.  
당보가 가지고 후원협동농  
장에 내려간 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농장원들에게 대표자  
회의와 관련한 기사를 읽어  
주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영  
광을 안고 평범한 영농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자고 호소  
하였다. 이에 고무된 농장원들  
은 한달의 날마다 해설이  
이제에 거두어들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결의안고

## 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조직들과 당선선동부  
에서  
평원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에서  
이런 사업을 앞장섰다. 군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의  
승용차에 체중계가 갖추어지고  
체중계가 당적출판물배포정  
형이 상생히 기록되게 되었다.  
중요한것은 이 사업을 매일 생  
활화하고있는 것이다.》

책임일군들의 생활화된 이런  
기공은 군간의 당원들과 근로  
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은 군대 《로동신문》을 읽고  
그날사업을 시작하는 기공이  
확립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와 관련  
한 중요기사 《로동신문》에  
실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였다. 군당위원회 비서들인 김  
건영, 안호동동무를 비롯한 일  
군들은 이른 새벽 군당위원회  
내로갔다. 당보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읽고 제일  
먼저 거기에 위치한 체중계들  
에 내거기 배포하기 위해서였다.  
당보가 가지고 후원협동농  
장에 내려간 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농장원들에게 대표자  
회의와 관련한 기사를 읽어  
주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영  
광을 안고 평범한 영농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자고 호소  
하였다. 이에 고무된 농장원들  
은 한달의 날마다 해설이  
이제에 거두어들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결의안고

## 기다려지는 독보시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조직들과 당선선동부  
에서  
평원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에서  
이런 사업을 앞장섰다. 군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의  
승용차에 체중계가 갖추어지고  
체중계가 당적출판물배포정  
형이 상생히 기록되게 되었다.  
중요한것은 이 사업을 매일 생  
활화하고있는 것이다.》

책임일군들의 생활화된 이런  
기공은 군간의 당원들과 근로  
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은 군대 《로동신문》을 읽고  
그날사업을 시작하는 기공이  
확립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와 관련  
한 중요기사 《로동신문》에  
실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였다. 군당위원회 비서들인 김  
건영, 안호동동무를 비롯한 일  
군들은 이른 새벽 군당위원회  
내로갔다. 당보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읽고 제일  
먼저 거기에 위치한 체중계들  
에 내거기 배포하기 위해서였다.  
당보가 가지고 후원협동농  
장에 내려간 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농장원들에게 대표자  
회의와 관련한 기사를 읽어  
주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영  
광을 안고 평범한 영농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자고 호소  
하였다. 이에 고무된 농장원들  
은 한달의 날마다 해설이  
이제에 거두어들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결의안고

## 신선정확한 배포와 선전선동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조직들과 당선선동부  
에서  
평원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에서  
이런 사업을 앞장섰다. 군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의  
승용차에 체중계가 갖추어지고  
체중계가 당적출판물배포정  
형이 상생히 기록되게 되었다.  
중요한것은 이 사업을 매일 생  
활화하고있는 것이다.》

책임일군들의 생활화된 이런  
기공은 군간의 당원들과 근로  
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은 군대 《로동신문》을 읽고  
그날사업을 시작하는 기공이  
확립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와 관련  
한 중요기사 《로동신문》에  
실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였다. 군당위원회 비서들인 김  
건영, 안호동동무를 비롯한 일  
군들은 이른 새벽 군당위원회  
내로갔다. 당보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읽고 제일  
먼저 거기에 위치한 체중계들  
에 내거기 배포하기 위해서였다.  
당보가 가지고 후원협동농  
장에 내려간 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농장원들에게 대표자  
회의와 관련한 기사를 읽어  
주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영  
광을 안고 평범한 영농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자고 호소  
하였다. 이에 고무된 농장원들  
은 한달의 날마다 해설이  
이제에 거두어들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결의안고

## 당보 학습을 생활화할 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조직들과 당선선동부  
에서  
평원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에서  
이런 사업을 앞장섰다. 군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의  
승용차에 체중계가 갖추어지고  
체중계가 당적출판물배포정  
형이 상생히 기록되게 되었다.  
중요한것은 이 사업을 매일 생  
활화하고있는 것이다.》

책임일군들의 생활화된 이런  
기공은 군간의 당원들과 근로  
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은 군대 《로동신문》을 읽고  
그날사업을 시작하는 기공이  
확립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와 관련  
한 중요기사 《로동신문》에  
실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였다. 군당위원회 비서들인 김  
건영, 안호동동무를 비롯한 일  
군들은 이른 새벽 군당위원회  
내로갔다. 당보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읽고 제일  
먼저 거기에 위치한 체중계들  
에 내거기 배포하기 위해서였다.  
당보가 가지고 후원협동농  
장에 내려간 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농장원들에게 대표자  
회의와 관련한 기사를 읽어  
주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영  
광을 안고 평범한 영농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자고 호소  
하였다. 이에 고무된 농장원들  
은 한달의 날마다 해설이  
이제에 거두어들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결의안고



당보 배부 제때에 보야야 당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 요구대로 일할수 있습니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

《당보 배부 제때에 보야야 당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 요구대로 일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

《당보 배부 제때에 보야야 당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 요구대로 일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

《당보 배부 제때에 보야야 당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 요구대로 일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

《당보 배부 제때에 보야야 당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 요구대로 일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 기념우표 발행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기념

주제99(2010). 8. 26-8. 30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것을 기념하여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우표(묶음전지 1종, 개별우표 1종) 들을 발행하였다.

우표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기념》, 《주제99(2010)》, 《8. 26~8. 30》이라는 글말이 쓰여져있다.

개별우표에는 형제적중국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을 안시고 올해에 두번째로 중국을 방문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존경하는 호급도동지와 뜻깊은 상봉을 하시신 사진이 모셔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80여년전 학창시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체취가 그대로 스며있는 길림 육문중학교를 방문하시고 친필을 남기시는 사진, 중국의 중앙과 성의 지도간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장순제도적차용사, 합빈해장식품공사를 참관하시는 사진 등이 묶음전지에 반영되어있다.

기념우표들은 아버지수령님과 중국의 로세대령도자들에게 의해 마련된 조경친선판권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 평양시인민위원회 편의봉사관리국 기술준비소 소장 고영찬동무

### 의리와 양심으로 건설국의 길

《논대리는 낫을 날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아들을 한몸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아버지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르며 난 뜨거운 눈물을 질겁할수 없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을 잃고 새해를 맞은 원아들이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학원을 찾아주셨고, 원호물자의 뜻보다도 우리 장군님의 높은 신념을 따르려는 마음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었다.

소장의 마음을 알게 된 종업원들 모두가 이 사업에 따라나섰다.

원호물자를 받아내고 기쁨에 넘쳐있는 원아들의 밝은 모습은 종업원들의 얼굴마다에 신심과 락관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고영찬동무가 지린 원군의 불씨는 집단안에 불길로 활활 타올랐다.

종업원들은 누구나 원군사업에 지성을 바쳤고 그 마음들이 합쳐져 일터를 잘 꾸리고 설비들을 현대화 하는 사업도 힘있게 벌어졌다.

고영찬동무는 한계 단위를 책임진 일군으로서 늘 바빠 뛰어다니는 속에서도 언제나 원군사업만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무엇이 하나 생겨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군인들을 위한 일에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다. 그의 가정에서는 해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지성원 원호물자들을 인민군원들에게 보내주었으며 여러가지 원호물자들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장에 찾아가 로력적위훈을 펼쳐가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을 뜨겁게 고무해주었다.

그 나날 고영찬동무는 분에 넘치게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감사를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 믿음, 그 사랑에 보답할 일일 안고 고영찬동무는 원군사업을 더욱 용이 크게 벌려나갔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종업원들의 원군열의는 더욱더 높아졌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총속에 고영찬동무가 전국인민군비공역자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다음날부터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보도에 접했을 때였다. 그는 원호물자를 생산의것 준비해가지고 원아들을 찾아갈것을 결심하였다. 그때는 생활형편이 너무라움이 어려웠다. 가정에서 마련한 원호물자가 적게만 생겨 각되어 안되는 여간만 마음쓰지 않았다. 그러나 안에는 고영찬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 친근한 식솔들

락랑구역 두단동 15인민반 영예군인 윤철호동무의 편지에서

우리는 영예군인 윤철호동무로부터 받은 한통의 편지를 펼쳐들었다.

《우리 가정은 여기 락랑구역 두단동으로 이사를 때까지만 해도 이곳에 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 서먹서먹할것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정답고 친근한 식솔들이 저를 기다리고있습디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편지에 사람들마다 서로 돕고 이끌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 그대로 비쳐있었던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는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데 있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이사는 다음날 아침 윤철호동무는 안해와 함께 집가까이에 있는 대동강가로 나갔다. 그때 문득 《영예군인동무로구나.》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낯선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럼없이 다가와 그가 탄 세비퀴차를 밀어주었다. 윤철호동무를 집에게서 데려다주며 그는 그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는 떠나기에 앞서 영예군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다.

《이제부터 나를 친형이라고

## 서로의 창조적 지혜를 합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는 용감한 공격정신, 남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디다.》

강철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심고리는 무엇이었는가. 이 문제를 놓고 그날도 김책체철련합기업소 강철2직장에서는 조공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의 모임이 방도도록 진행되었다.

《우리 직장에서 강철생산을 늘이려면 로수명에 영향을 미칠수 있었던것이였다. 그렇다고 물러설수 없었다. 진정한 협의끝에 직장에서는 사명관, 로조좌공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

## 미더운 선구자

강철1직장 연속조작업반 방장 한용희동무를 가리켜 사람들은 기술혁신의 명수라고 부른다.

그는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하기 위한 방도는 기술혁신에 있다고 하면서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있다.

그는 올해 대고조의 앞장에 강철을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더 많은 강철생산으로 보답할 바라는 한마음을 안고 최근에만도 5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작업장생산에 이바지

강철1직장 연속조작업반 방장 한용희동무를 가리켜 사람들은 기술혁신의 명수라고 부른다.

그는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하기 위한 방도는 기술혁신에 있다고 하면서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있다.

그는 올해 대고조의 앞장에 강철을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더 많은 강철생산으로 보답할 바라는 한마음을 안고 최근에만도 5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작업장생산에 이바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위대한 우리 당은 진정한 어머니품이라는것을 노래부르고있다. —선교편직공장에서— 김진명 찍음

## 기술혁신경기로 대비약의 돌파구

김책체철련합기업소 화학분공장에서 당의 과학기술 총공선을 높이 받들고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년간인민경제 수행에서 앞장서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날의 시대 요구하는 참다운 자력갱생의 정신을 지니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대고조의 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새 기술의 개척자, 전조병이 되어야 합니다.》

화학분공장에서는 과학기술로 대고조의 돌파구를 열어나감에 대한 당의 의지를 높이 받들고 정초부터 일터마다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었다.

특히 분공장에서는 올해 인민경제계획수행의 담보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기술혁신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분공장에서는 작업반들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로해한 다

## 우리 계획지령원

김책의 미더운 혁신자, 대고조선구자들이여는 생산과 계획지령원 박병철동무도 있다.

제대군인인 그는 생산과 계획지령원으로 일하지만 늘 생산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맡은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그는 생산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언제나 앞질러가며 풀어주는것을 원칙

김책의 미더운 혁신자, 대고조선구자들이여는 생산과 계획지령원 박병철동무도 있다.

제대군인인 그는 생산과 계획지령원으로 일하지만 늘 생산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맡은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그는 생산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언제나 앞질러가며 풀어주는것을 원칙

# 공동선언리행은 북남관계개선의 방도

민족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자주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해서는 해내의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노력과 지향이다. 6. 15 통일시대와 더불어 활짝이겨진 친선단결 조국통일운동이 엄중단 난판에 부딪치고있는 현실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북남관계개선의 절박성을 더욱 절감하게 한다. 올해공동사실에서 제시된 중요한 과업의 하나도 바로 북과 남이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 나가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올해공동사실에서 친명명사와 같이 역사적인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 개선을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이며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북남관계개선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근본전제이다. 북남관계개선을 떠나 민족적화해와 단합, 협력을 생각할 수 없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도 바랄 수 없으며 조국통일과 관련된 그 어떤 문제도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없다. 북선과 대결의 현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자는 것이야말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조국통일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도이다.

북남관계개선의 기초는 역사적인 6. 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 선언이다.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은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선언이다.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은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밝혀주었다. 북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시킨 역사적경험은 북남관계들이야말로 자주통일의 표대이며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며 겨레의 념원인 자주통일, 평화번영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것을 웅변으로 립중해 주고 있다.

우리는 올해에도 극도로 악화된 북남관계를 어떻게 하나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전환적극면을 열기 위하여 주동적이며 대담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알리건것처럼 우리는 올해에 들어와 개성공단지구사업을 활성화하고 금강산과 개성기구의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북남실무접촉을 제기하고 5. 1절 12. 0 톤기류 북남동차통일행사와 6. 15 공동선언발표 10주기인 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등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고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우리가 흘려온 가족, 친척사별을 10월에 진행하기로 하고 금강산 관광개선을 위한 북남실무접촉을 제기한 것은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에 기초하여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새 장을 열어나가기에는 송고한 애국의 일념으로 출발한 것이다. 우리의 조치가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겨레의 자주통일기운을 고조시키고 북남사이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조치들에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온다면 북남관

계는 불신과 대결상태에서 벗어나 신뢰와 화해,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게 될것이다.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할 때만이 북남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올해의 정세흐름이 보여주는 교훈이다.

북과 남의 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전환시키자는 것은 불신과 대결을 끝내고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이며 근본요구이다.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남조선당국의 태도는 대결일변도적이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저들의 반민족적외력으로 얼룩진 지난해를 그 무슨 '세대로 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마비한 해'로 분별하면서 '대북정책'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한것은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탄시켰다는 공언이나 다름없었다.

남조선당국은 정초부터 핵문제를 북남관계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협력'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할수 없다.'고 으니, 새로운 남북관계정립을 위한 조정이 나 하는 꾀변들을 늘어놓으면서 북남사이의 금강산, 개성지구관광개선을 위한 실무접촉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대화들을 파탄, 결렬시켰다. 「선제타격」폭언이 횡행되어오는데는 속대 내외에서 '남조선당국이 모략적인 합심침몰사건을 계기로 버티지 못하는 조건부들을 내놓고 반공

화국대결전선소동의 도수를 무한정 높이는 한편 민간경제와 협력사업까지 전방위 차단시켰고 그것을 잘 말해준다.

반통일보수세력이 북남선언들을 전면 부정하면서 외세공조와 동족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한 결과 북남관계는 완전히 풍지박산나고 조선반도의 정세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국면에 처해있다. 6. 15 이전의 참예한 대결상태로 되돌아가 북남관계의 현실은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풀잠겨지지 않는 한 북남관계개선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남조선당국은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역사적인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에 대한 부정은 곧 민족자주, 민족공조에 대한 부정이며 북과 남의 화합이 아니라 동족대결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심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통일, 민족공동의 번영을 바란다면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대화와 협상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동족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대결정책을 당장 철회하여야 하며 북남사이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의 악화는 남조선당국에도 리로울 것이다.

공동선언리행에 북남관계개선의 길이 있다. 해내의 온 겨레는 올해공동사실이 밝혀준대로 북남선언들의 가치와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 불순한 기도가 깔린 모락소동

남조선당국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를 계기로 그 누구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명목에 북탁소동을 피우고있다. 이미 피피합동참모본부에는 그 무슨 《도발》에 대비한 작전본부가 설치되었다. 남조선군부는 미군과의 《련합감시태세》와 《국지도발대비태세》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한편 남조선군부는 우리를 《주위의 위협감시태세》으로 규정해 기조하여 《북방한계선침범》 등 나라를 대외의 《도발》유행까지 설정해놓고 살벌한 대결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얼마전 피피합동참모본부의 장이라는 자는 회의기간을 전후하여 공중과 해상, 비행장 등지에서 발병할수 있는 《도발》에 대비한 군사적태세를 철저히 갖추라는 말발까지 제치렀다.

걸핏하면 동족을 터무니없이 끌고드는 그 못된 악습은 어디 갈데 없다. 하지만 보수세대의 이런 소동은 극히 불순하고 도발적인 성격을 내포하고있다. 한마디로 그것은 「권안」호사건의 조작으로 시작된 모락국의 제2막으로 있지도 않는 북의 《위협》과 《도발》을 적극 파괴하면서 그것을 구실로 남조선은 물론 국제적면에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추악한 음모이다.

우리에게 감히 《도발자》의 갑투를 끼워 공화국의 대외적위위를 훼손시키고 대결전쟁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남조선보수세대의 더러운 속심이다. 우리에게 군사적도발과 위협을 끊임없이 가하고있는자들이 오히려 제면에서 《도발》과 《위협》을 떠들고있으니 이 얼마나 괴물적한가. 국제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우리를 모해하며 대결광기를 부리는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반공화국당동은 전대로 목과할수 없다.

머구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남조선당국이 국제회의의 《안전보장》을 위한 이른바 「군사적대비」의 명목으로 미국과 공조하여 우리를 겨냥한 위험한 군사적목적임을 보이고있는 사실이다. 얼마전에 열린남 조선미국 《연세안보협의》에서 피피호전관들은 미국에 「련합감시정찰전선의 보호》를 청탁하였다. 이어 「대북감시태세강화》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우리측 지역에 대한 군사적행위를 본격화할 심산으로

미국상진에게 《U-2》고공전략정찰기와 조경보통제기의 감시정찰능력을 더 늘어줄것을 애걸하였다. 지어 위험한 최신전투기인 KF-21 2A형기 1-2개 편대를 남조선에 증파해줄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집권세력이 국제회의를 계기로 반공화국도락소동을 강화하고있는것이 그 누구의 《위협》이나 《도발》가능성을 느껴서가 아니라 실제로 있어서는 외세와 함께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우리를 무력으로 해치기 위해 벌리는 의도적인 책동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는 지금 북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가지 실천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천을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고있다. 우리의 평화에 초적이고 대외적향적인 노력은 해내의 온 겨레는 물론 광범한 세계여론의 지지를 받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구태의연하게 대결을 고집하면서 우리를 계속 모함하고있으며 정세를 더욱더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다.

내세에 역행하는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행위 가 내외의 강력한 규탄대박을 받고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남조선집권세력은 조선반도의 참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할데 대한 온 민족과 국제사회의 요구앞에 수세에 몰려 썰매메고있다. 이로부려 그들은 불리한 처지를 역전시키고 집이 점점 빠져서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어떻게 하나 추세를 궁여지책으로 또다시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위협》을 광고하며 북탁소동을 피우고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국제회의를 계로 결코 우리를 반대하는 모락소동에 열을 올리는것이야말로 우리의 대화노력과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로 하여 안락으로 고립되고 궁지에 몰린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불순한 반공화국도락소동에 기세를 부릴수록 대화과파, 평화원자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몰골만은 더욱 드러내게 될뿐이다. 남조선당국은 이것을 명심하고 부질없는 대결광대극을 당장 건어치워야 한다.

허영민

# 미싸일방위체계가담백동을 규탄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로총, 진보련대, 반전평화련대 준비위협회, 민주로총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들이 10월 25일 서울 피피국방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가담하려는 호전광들의 광풍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국방부장관 김대영이 22일 《국회》에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 참가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힌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선일자들이 꺼려하던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 참가를 회색하고 그 실천을 적극 다그쳤다고 하면서 김

대영의 이번 망발은 이러한 책동의 연장선에서 나온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그 무슨 《방어》를 위한것이 아니라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서 이 체계에 남조선이 가담하는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고 조선반도의핵무력과 평화환경정제결을 가로막는 위협천만단 행위라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 가담은 남조선의 대미군사적속속을 심화시킬뿐 아니라 친문화적인 제정부를 조려해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조조의 근본원인은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침략동맹에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매달려저들의 집권유를 추구하며 동족인 북을 암살하기 위해 날뛰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당국이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참가하려는 무모한 망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의 후엔마미군기지가 이 땅에 끌어들이겠다는 리명박이나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 참가를 검토하겠다는 김대영을 비롯한 사대매국노들은 당장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망상

어리석은 환상에 사로잡힌 남조선집권세력이 《세계통일》 야망을 먼저 본격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무슨 《금번사태대비》이라고 하는 일명 《홍익계획》이라는것을 작성한것을 놓고도 이렇게 말할수 있다. 보수계당은 어처구니없게도 《북극변사태》로 인한 《대규모난민발생》이니 뭐니 하고 떠들며 이따위 도발적인 계획을 꾸미냈다. 《홍익계획》의 작성은 남조선당국이 우리에게 대해 허창하는 놀음을 벌리었다. 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앞으로 2-3년 이 분수령》이니 하면서 백년가도 실현되지 못할 망상을 무로골조로 드러냈다. 남조선당국은 나중에 《을지 트리엄 가더언》 합동군사연습에서 미국과 함께 《금번사태》에 대비하여 꾸미던 《작전계획 5029》에 따른 그 무슨 《북안정화》연습이라는것까지 감행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남조선당국자까지 직접 나서 《통일이 반드시 오리 통일

세를 준비》하자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가 떠는 《통일》이라는것이 《금번사태》에 따른 《세계통일》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당국자의 불순한 《통일세》망발에 따라 《한나라당》과 통일부제끼리 들고 그리고 꾸무부적인 학자들은 《통일세》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니, 《후속조치》니, 토론하하 하면서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전 남조선보수세당은 미국과 함께 《연세안보협의》라는것을 열고 그와 관련한 《공동성명》에 그 누구의 《불안정사태》다시말 하면 《금번사태》를 의미하는 문구를 무로골조로 명기하였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말로는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에 대해 운운하지만 실제에서는 불순한 야망을 추구하면서 우리를 기어이 해치고 《세계통일》을 실현하려고 얼마나 무분별하게 헤택미고있는 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었다.

모략적인 《금번사태》설을 끈덕지게 내뿜으며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북침야망을 이루어보려는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적동은 실로 목과할수 없는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할것을 바라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보수세당은 보다실외와 야합하여 북침통일행위를 실현해보려고 탐악하고있다. 이로써 남조선보수세당은 우리의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바라지 않으며 대결정책을 유지하면서 제 전쟁도발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였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신문은 최근 당국이 추진하고있는 《통일세》공론화는 한나라당이 《북극변사태》에 대비한것이라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북을 압박하는데 초점을 둔 대결

본사기자

# 안중근렬사사형과 관련한 일제교형리들의 진행 공개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일제교형리들이 조선침략의 원흉 이도 히로부미 (이등박관)를 처단한 안중근렬사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후 재판관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10월 25일 피피국무총리직속기관인 《보훈처》가 안중근렬사에 대한 재판 및 사형집행후 일본교형리들의 죄행이 기록된 자료를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안중근이 일제

교형리들에 의해 무함히 교살된지 3일후 발행된 1910년 3월 29일 《만주일신문》과 《만주신보》 등 일문물에는 《3월 26일 안중근의 매장이 끝났다는 보도가 온지 얼마후 오후 5시에 안중근재판의 최고책임자인 러순도승판관직장의 판에서 안중근사형판결사죄로판단화라는 이 름으로 축약어를 개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당시 일본은 재판을 시작하

기 도전에 사형을 미리 결정하고 재판을 통해 교수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에 관련한 재판관계자들에게 보상금을 주었다.

《보훈처》는 《사형수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나서 재판관과 검찰관모두 보상금을 받고 축약언어한 한것은 일제가 안중근에 대한 재판을 의도한대로 조작진행하기 위해 얼마나 긴장했는지를 암시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김보수세당은 이 기구가 《과과(정권)》의 정지조수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직했다. 이는 비난을 퍼부으면서 무로골적인 압박을 가했다. 그들은 이 기구의 활동을 대해 비판해감을 드러내면서 기구내의 진보적인사들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지어 《존재리유가 사라진단김기구를 해체해야 마땅하다.》고까지 떠들어 두었다. 이자들은 권력을 틀어쥔 후에는 기구의 진보적인사들을 하나, 둘 물러내고 위헌장리리를 비롯하여 핵심적인 자리들에 저들의 졸개들을 박아넣었다.

이때부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활동은 보수당국의 일탈과 비위에 맞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얼마전 이 기구의 위원장이라는 자는 최종심의를 통과한 여러건의 달하는 조선전쟁사기 민간인단체회생선진보고서들에 대한 결제를 질질 미루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사대매국과 반통일대결로 엮여진 저들의 어리러는 과거사리를 어떻게 하나 미화분신하여 보수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과 항의를 누트었고 독재권사력을 유지하려고 온갖 술책에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할 대신 그것을 계속 거꾸부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최악의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망당이다.

자주속의 송곳은 갈수록 없고 손바닥으로 핵를 가리울수 없듯이 그 어떤 권모술수로 역사를 이 현실은 결코 갈수록 없다.

본사기자

수확정면대에 대한 언급하였다.

공인당국이 지난 6월 문경환의 집을 수색하였지만 아무런 단서도 취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도 또다시 그에게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춰워 이러한 폭거를 감행하였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성명은 당국이 최근 확실히 증거도 없이 무턱대고 집들을 수색하는 등 실행면대에 그 관계자들이 대한 탄압을 날로 강화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주민들속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높아가자는 반 정부기운을 억누르기 위해서라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6. 15 학생위원회는 불순한 기도됨에 감행되는 당국의 탄압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일방적이며 굴욕적인 협상을 규탄

남조선의 《경향신문》 10월 27일부가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미국과 보수당이 국사이의 비협박 모의를 규탄하였다. 신문은 최근 미국과 남조선당국사이의 통상상관회의라는데서 《자유무역협정》체결과 관련한 협상이 비밀리에 진행되고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은 미국의 압력

으로 하여 협상에 대해 한나라당조차 못하고있다고 신문은 비난하였다. 신문은 지금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협상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언급했고 당국은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본사기자

# 검출수능된 민족사의 진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의 조종을 받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조선 전쟁시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비공개문서를 문문에 게재했다는 리유로 한 조사판을 해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사회각계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그 비공개문서라는 것은 경상남도 함양, 산청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두고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고 지시한 피피군 11사단 《토벌군》의 《작전명령 5호부록》이다. 그것은 1951년 당시 민간인학살사건이 피피군의 명령에 따라 실행됐음을 입증하는 최초의 군내부문서라고 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 침략군과 남조선피피군은 도처에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다. 경상남도 함양, 산청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행위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진실을 용납 못할 민족학살단행은 저들의 과거죄악이 드러나는데 두려워 지난 수십년전 철거한 역사기록과 은폐물들을 벌린 남조선보수세당에 의해 흑막속에 가리워져 있었다.

문제는 남조선의 진실, 화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합상, 산청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문서들을 2007년에 입수하고도 오늘까지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을 문문에 밝힌 조사판결을 해임한 사실이다. 지금 남조선각계는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려 만든 기구가 오히려 진실의 공개를 가로막고있다고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도 당국이 《진실규명의 의지를 보여주는 커닝적인 공개를 두려워하고있다.》고 비난하였었다.

남조선의 지리산주변에는 산적, 함양평민학살사건희생자추모공연이 자리잡고있다. 지금도 여기에서는 비록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건의 진상을 밝힐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피를 유기가 계속 울려들고있다.

지난 시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조직된 기구라면서도 객관적인 진상규명활동을 벌려왔다는 평을 받았다. 남조선의 과거 파쇼독재 《정권》들이 야만적인 괴문과 허위자백으로 남조해왔던 인민적명당사건, 민족일보사건 등의 진상이 이 기구의 활동에 의해 밝혀졌다.

하지만 이것을 못마땅히 여

기 보수세당은 이 기구가 《과과(정권)》의 정지조수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직했다. 이는 비난을 퍼부으면서 무로골적인 압박을 가했다. 그들은 이 기구의 활동을 대해 비판해감을 드러내면서 기구내의 진보적인사들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지어 《존재리유가 사라진단김기구를 해체해야 마땅하다.》고까지 떠들어 두었다. 이자들은 권력을 틀어쥔 후에는 기구의 진보적인사들을 하나, 둘 물러내고 위헌장리리를 비롯하여 핵심적인 자리들에 저들의 졸개들을 박아넣었다.

이때부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활동은 보수당국의 일탈과 비위에 맞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얼마전 이 기구의 위원장이라는 자는 최종심의를 통과한 여러건의 달하는 조선전쟁사기 민간인단체회생선진보고서들에 대한 결제를 질질 미루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사대매국과 반통일대결로 엮여진 저들의 어리러는 과거사리를 어떻게 하나 미화분신하여 보수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과 항의를 누트었고 독재권사력을 유지하려고 온갖 술책에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할 대신 그것을 계속 거꾸부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최악의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망당이다.

자주속의 송곳은 갈수록 없고 손바닥으로 핵를 가리울수 없듯이 그 어떤 권모술수로 역사를 이 현실은 결코 갈수록 없다.

본사기자

#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주적》소동

지금 남조선의 전반적인심은 당국이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 기회의에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성역에 대해 《적의 립장을 우회적으로 평형화》이라고 평한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를 예고해주고있다.

피피군부세력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대화의 막위에 서서 제외적인 방수들을 쓰면서 그 회피하고 《주적》소동으로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넣곤 하였다. 이번에 또 그런 악습환이 되풀이된다고 말할수 있다.

2008년 현재 보수 《정권》의 출현과 함께 특혜한 피피군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공언함으로써 북남관계를 삼사에 얼어붙게 하였었다. 6. 15 통일시대와 더불어 이루어졌던 북남화해, 협력사업들이 파란의 위기에 처하고 그 상성인 금강산관광사업이 제동이 걸렸다.

그에 대한 사회각계의 비난이 갈수록 거세지고 6. 15 이전의 진취물을 지키려는 남조선인들의 대중적항거가 보수 《정권》의 집권기반을 흔들었다. 집권층내부의 통일, 외교전문가들까지 당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격렬한 항거를 하였다. 《적극적인 남북관계회복》을 주장했다.

바베맞은 현 당국자는 그해 7월 제18대 《국회개원식》에서 한 이른바 《시정연설》이라는데서 《당국자 전면적 대화개화》나 뭐니 하며 여론을 선동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집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교활한 민심기만이었다.

반역세당이 《문제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나, 《전제조건》이니 하며 북남대화에 의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모든 문제를 《비핵, 개방, 3000》의 변종인 《상생, 공영》의 바탕 위에서 해결했다. 대외적관계의 기회를 차단짓는것에 대한 생존한 립장은.

이런 속에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 《국회》본회의에서 《주적》등을 공명연설이 제창하였다. 대결광신자들의 《주적》소동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만언으로 이어졌고 그해 12월 《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주적판》주임을 위한 《리명정》을 선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북남관계는 대화와 협력에 아닌 대결과 전면 파국으로 치달았다.

지난해에 들어서면서 보수세당의 《주적》소동은 보다 본격화되었다.

3월호 남조선국방부는 현 《정권》의 출현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국방백서》라는데서

우리를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악랄하게 경고하였다. 지어 보수세당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미싸일 위협》이니, 《안보불안 위협》이니 하고 히두니언이 경고되면서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에 전면적으로 가담하였다.

악명을 떨친 미제침략군의 초대형형량공포담 《쫓겨온 위문》호러격담이나 동원된 대외적대결선에서 대규모적인 《키 리플즈》, 《투수기》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졌다. 미제 8천터비행단과 피피제 11천터비행단 《호상작전운용능력》 등을 높인다는 리명하에 합동공중전훈련을 벌이고 각종 공군의 복직전체제들이 보다 보충반비되었다. 조선반도정세는 일시에 전쟁정정으로 치달았다.

보느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주적》론이 미리를 쳐들 때마다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 대화와 협력의 기회는 하늘로 날아나고 위험천만한 북침불장난소동과 함께 북남관계는 과거의 악순환을 거듭했다.

최근의 상황도 다름바 없다. 남조선당국자가 모략적인 합심침몰사건을 구실로 그 무슨 《원로회의》라는데서 《발발》의 위협》이니, 《주적계정립》이니 하며 군부를 대결에로 부추기고 《한나라당》 폐거

본사기자 리 호 진

# 인류의 태양을 우러러따르는 뜨거운 마음

「우주에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태양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태양이 없다. 그 태양은 바로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접견을 받는 영광을 지닌 전 소련작가동맹 제1비서 카르보브가 귀국하여 조선방문소감에 대하여 묻는 자기 나라 기자들에게 한 심장의 토로이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품도,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었다.」

이전 소련의 붉은군대 경찰소대장이었던 카르보브는 지난 소조전쟁시기 전쟁에서 특출한 공을 세운 20대에 쓰러진 영웅을 수어받은 장교였었다. 그가 포로한 파소도비처럼 단정착자들은 근 70명에 달하였다.

전후에 제대되어 대학을 졸업한 그는 자기의 회고대로 사회생활의 대면자이던 인간정신의 기정실시작가 되었다. 그가 경험한 인간의 생활현실 초기창조 창작성 《사평만》, 《생로하락》 등 군사물주체의 장편소설들은 내용이 좋고 전투적일수록 하여 독자층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카르보브의 저작들은 후날 그가 쓰러진작가동맹 제1비서의

중임을 맡게 한 《보증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 떨치던 소련이 20세기 90년대초에 와서 하루아침에 물먹은 담벼락처럼 붕괴되자 극도의 허탈감에 사로잡힌 카르보브는 수십년간 손에서 한시도 놓을 줄 몰랐던 붓대를 집어던지고 필대로 되려는 식의 심리상태에 빠졌다.

정신적 방황의 옹호자, 대번자 가 되어던 작가로서의 리상과 꿈이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물거품으로 되고말았다는 서글픈 생각이 그의 가슴을 찔러들었다.

그러한 그에게 서풍이 비쳐 들었으니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사회주의의 위엄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논리적으로 명확히 논증한 불후의 고전적작품들이었다.

이전 소련과 동유럽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원인은 무엇이든 필승불패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밝힌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은 압축속에서 갈길 몰라 헤매이던 카르보브에게 인생의 활로를 열어준 동등했다.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의 신념과 학관을 안주시키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작품들을 읽을수록 카르보브는 그의 현명한 령도인 불패의 사회주의의 보루로 높이 솟아 빛을 뿌리는 조선의 현실을 꼭 보고싶은 충동을 억누를수 없었다.

마침내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주제 84 (1995)년 그는 전 소련국방상 야조브와 함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다. 사회주의를 고수하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사회주의수호전을 벌리던 우리 나라를 찾는 카르보브의 심정은 복잡하였다.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이 지켜내는 사회주의를 우리는 왜 지켜내지 못하였던가 하는 쓰러진 아픔과 함께 쓰러진 같은 초대국이 고수하지 못한 사회주의를 조선이 과연 지켜낼수 있겠는가 하는 위구심이 그를 괴롭혔었다.

그러나 평양에 도착하여 사회주의의 기상이 나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후 그는 자기가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수록 그의 은넋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호자이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호자이던 이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로 달랐다.

이러한 그에게 영광의 시각이 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조브일행을 접견해주시기 위해 친히 그들의 속소를 찾으셨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각에게 목이 매여 미처 인사말도 제대로 울리지 못하는 카르보브의 손을 꼭잡고 잡아주시면서 면담을 으노라고 수고하셨다고, 건강은 어떠하며 불편한 점은 없는가고 다정히 물으셨었다.

인류가 우러러가 따르는 절세의 위업을 몸가이기에 모신 크나큰 감각과 흥분으로 하여 카르보브는 대답 대신 어깨만 들먹이셨었다.

손님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카르보브에게 정찰병은 군인들 가운데서 가장 용감하고 대담하며 기

지가 있고 행동이 민첩한 군인들이 선발되는 병용인것만큼 정찰병출신자가 되는 군사주제의 작품을 잘 쓸수 있다고, 우리 나라에서도 종군기자들이 좋은 수기를 써서 남겨 놓았기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훌륭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인민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데서 혁명적문학이 노는 역할에 대해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계속하시어 인민대중을 기쁨을 믿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자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자와 한다는것이 주제사상의 진수라고 하시면서 자기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굳건히 고수되고 있는것을 우리의 사회주의가 주제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의 기예물이라고 명칭하게 밝혀주시었다.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기안으로 카르보브는 지금까지 주제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에 대해 깊이 파악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주제사상이 없었다면 이 시대는 과연 어느 길로 가왔을 것인가. 주제사상이 구현된 조선이 없었다면 사회주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주의의 명맥을 이어주고 인류의 미래를 담보해주는 주제사상이야말로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것이 깊이 느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카르보브가 우리 나라에 계류하는 기간 우리 새채취나 만나주시고 인생의 새 출발로 하도록 이끌어 주시였으며 그가 다음에 가서 할 일과 할 때에 하는 가족들까지 모두 데리고오도록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정을 거듭 배풀어주시었다.

정면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인민뿐 아니라 정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인민들 모두를 사랑의 한복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만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하기에 카르보브는 귀국하여 자기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일념으로 혁명의 필요를 역세게 틀어쥐고 사회주의계진운동에 고무수동하는 문예작품을 창작하는데 애를 썼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굳건히 고수되고 있는것을 우리의 사회주의가 주제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의 기예물이라고 명칭하게 밝혀주시었다.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기안으로 카르보브는 지금까지 주제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에 대해 깊이 파악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주제사상이 없었다면 이 시대는 과연 어느 길로 가왔을 것인가. 주제사상이 구현된 조선이 없었다면 사회주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주의의 명맥을 이어주고 인류의 미래를 담보해주는 주제사상이야말로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것이 깊이 느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카르보브가 우리 나라에 계류하는 기간 우리 새채취나 만나주시고 인생의 새 출발로 하도록 이끌어 주시였으며 그가 다음에 가서 할 일과 할 때에 하는 가족들까지 모두 데리고오도록 분에

# 철면피하고 가소로운 잔뼈

일본이 이미 거덜이 난 《람치문제》를 국제무대에 계속 들고다니다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최근 유엔총회 65차회의 3위원회에서 일본인민뿐 아니라 정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인민들 모두를 사랑의 한복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만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하기에 카르보브는 귀국하여 자기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일념으로 혁명의 필요를 역세게 틀어쥐고 사회주의계진운동에 고무수동하는 문예작품을 창작하는데 애를 썼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굳건히 고수되고 있는것을 우리의 사회주의가 주제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의 기예물이라고 명칭하게 밝혀주시었다.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기안으로 카르보브는 지금까지 주제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에 대해 깊이 파악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주제사상이 없었다면 이 시대는 과연 어느 길로 가왔을 것인가. 주제사상이 구현된 조선이 없었다면 사회주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주의의 명맥을 이어주고 인류의 미래를 담보해주는 주제사상이야말로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것이 깊이 느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카르보브가 우리 나라에 계류하는 기간 우리 새채취나 만나주시고 인생의 새 출발로 하도록 이끌어 주시였으며 그가 다음에 가서 할 일과 할 때에 하는 가족들까지 모두 데리고오도록 분에

일본이 이미 거덜이 난 《람치문제》를 국제무대에 계속 들고다니다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최근 유엔총회 65차회의 3위원회에서 일본인민뿐 아니라 정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인민들 모두를 사랑의 한복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만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하기에 카르보브는 귀국하여 자기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일념으로 혁명의 필요를 역세게 틀어쥐고 사회주의계진운동에 고무수동하는 문예작품을 창작하는데 애를 썼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굳건히 고수되고 있는것을 우리의 사회주의가 주제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의 기예물이라고 명칭하게 밝혀주시었다.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기안으로 카르보브는 지금까지 주제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에 대해 깊이 파악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주제사상이 없었다면 이 시대는 과연 어느 길로 가왔을 것인가. 주제사상이 구현된 조선이 없었다면 사회주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주의의 명맥을 이어주고 인류의 미래를 담보해주는 주제사상이야말로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것이 깊이 느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카르보브가 우리 나라에 계류하는 기간 우리 새채취나 만나주시고 인생의 새 출발로 하도록 이끌어 주시였으며 그가 다음에 가서 할 일과 할 때에 하는 가족들까지 모두 데리고오도록 분에

일본이 이미 거덜이 난 《람치문제》를 국제무대에 계속 들고다니다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최근 유엔총회 65차회의 3위원회에서 일본인민뿐 아니라 정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인민들 모두를 사랑의 한복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만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하기에 카르보브는 귀국하여 자기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일념으로 혁명의 필요를 역세게 틀어쥐고 사회주의계진운동에 고무수동하는 문예작품을 창작하는데 애를 썼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굳건히 고수되고 있는것을 우리의 사회주의가 주제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의 기예물이라고 명칭하게 밝혀주시었다.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기안으로 카르보브는 지금까지 주제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에 대해 깊이 파악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주제사상이 없었다면 이 시대는 과연 어느 길로 가왔을 것인가. 주제사상이 구현된 조선이 없었다면 사회주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주의의 명맥을 이어주고 인류의 미래를 담보해주는 주제사상이야말로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것이 깊이 느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카르보브가 우리 나라에 계류하는 기간 우리 새채취나 만나주시고 인생의 새 출발로 하도록 이끌어 주시였으며 그가 다음에 가서 할 일과 할 때에 하는 가족들까지 모두 데리고오도록 분에

#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쿠바공화국 외무성 부상 마르코스 로드리게스 코스타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는 조선인민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시하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술기롭고 근면한 조선인민은 신념과 학관에 넘쳐 투쟁하고 있다.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하에 조선인민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조선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자

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 사회주의경계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정일총애대학 견자도서관을 돌아보면서 조선의 앞날이 밝고 통일국대가 확실하였다.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은 쿠바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교수를 안겨주었다.

조선인민은 쿠바인민의 위업을 적극 지지하여왔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며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는 길에서 두 나라 인민들은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 미국의 반쿠바고립압살책동을 규탄

세계 여러 나라들이 10월 26일 유엔총회 회의에서 미국의 반쿠바고립압살책동을 규탄하였다.

유엔주재 바베이도스상임대표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을 유엔헌장의 원칙을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자기 나라는 자주적인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을 결렬히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유엔주재 가나상임대표는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의 봉쇄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쿠바정부와 인민을 지지하며 봉쇄철폐를 미국에 요구하는 자기 나라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인디아의 한 국회의원은 미국이 자의법적인 봉쇄조치로 쿠바인민에게 고통을 주고있다고 하면서 유엔총회의 결의들을 무시하고 봉쇄를 해제하지 않고있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 중조군민이 피로써 이룩한 위대한 승리의 력사

중국인민이 10월 23일 《평화의 통을 단적으로 피의 배를 타고》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하였다.

통신은 글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이 되는 역사적인 시기에 조선인민의 인민공화국 국방지원회의 초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는데 대해 전한 소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항미원조보가위구의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의 군인과 어깨걸고 싸워 승리를 이룩하였다.

오늘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이 지원군의 발자취를 따라 피로써 이룩한 위대한 력사를 돌이켜보게 된다.

항미원조 60년이 되는 역사적배경하에서 그리고 평화와

중국인민이 10월 23일 《평화의 통을 단적으로 피의 배를 타고》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하였다.

통신은 글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이 되는 역사적인 시기에 조선인민의 인민공화국 국방지원회의 초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는데 대해 전한 소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항미원조보가위구의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의 군인과 어깨걸고 싸워 승리를 이룩하였다.

오늘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이 지원군의 발자취를 따라 피로써 이룩한 위대한 력사를 돌이켜보게 된다.

항미원조 60년이 되는 역사적배경하에서 그리고 평화와

# 중화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주년 기념행사

중국인민이 10월 23일 《평화의 통을 단적으로 피의 배를 타고》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하였다.

통신은 글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이 되는 역사적인 시기에 조선인민의 인민공화국 국방지원회의 초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는데 대해 전한 소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항미원조보가위구의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의 군인과 어깨걸고 싸워 승리를 이룩하였다.

오늘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이 지원군의 발자취를 따라 피로써 이룩한 위대한 력사를 돌이켜보게 된다.

항미원조 60년이 되는 역사적배경하에서 그리고 평화와

# 중화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주년 기념행사

중국인민이 10월 23일 《평화의 통을 단적으로 피의 배를 타고》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하였다.

통신은 글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이 되는 역사적인 시기에 조선인민의 인민공화국 국방지원회의 초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는데 대해 전한 소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항미원조보가위구의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의 군인과 어깨걸고 싸워 승리를 이룩하였다.

오늘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이 지원군의 발자취를 따라 피로써 이룩한 위대한 력사를 돌이켜보게 된다.

항미원조 60년이 되는 역사적배경하에서 그리고 평화와

# 중화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주년 기념행사

중국인민이 10월 23일 《평화의 통을 단적으로 피의 배를 타고》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하였다.

통신은 글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이 되는 역사적인 시기에 조선인민의 인민공화국 국방지원회의 초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는데 대해 전한 소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항미원조보가위구의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의 군인과 어깨걸고 싸워 승리를 이룩하였다.

오늘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이 지원군의 발자취를 따라 피로써 이룩한 위대한 력사를 돌이켜보게 된다.

항미원조 60년이 되는 역사적배경하에서 그리고 평화와

# 나토군의 살인행위, 이스라엘군의 체포소동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반대로》의 명목에 주민들에 대한 살인행위를 계속 강행하고있다. 10월 25일 헬만 2주에서 나토군의 습습으로 25명의 무고한 아프가니스탄인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또한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민들에 대한 폭압행위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있다. 10월 24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 폭력행위 성행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 심각한 식량위기에 대처하여

아프리카에서는 2억 4000만명이상이 영양실조에서 시달리고있다. 세계적으로 6초만 어린이 1명이 기아로 죽고 있다.

급속한 인구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부정맥의 확산 등 여러 원인으로 앞으로의 식량공급에 더 큰 난관을 조성할것이라고 한다. 인디아의 경우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는것으로 지적되고있는데 방글라데시에서는 앞으로 25년여간 인구대폭 증가나 대신 농업생산량은 30%나 감소될것으로 예상된다.

사태가 심각해대로부터 국제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되고있다. 지난 10월에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상급회의에서는 식량안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할것을 호소하는 성명이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성원국들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서 중점협력할수행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농산물에 대한 식량무역을 활성화할수행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제적으로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기 위한 지역적인 노력을 발전된 나라들과 국제기구의 국제적인 제정 및 기술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있다. 최근 지역식량안전보장을 위하여 모던 관개사업이 협력과 자금부조를 신청하였는데 내세우며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 사회이론적안정성위협을 노려

최근 중국에서 당을 강화하며 사회적안정성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일마진 중앙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7기 제5차전원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외신들은 이번 전원회의가 중국이 제11차 5개년 계획을 끝낸 후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건설하는 판권적인 시기에 열린것으로 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을 추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전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최근년간 세계금융위기의 커다란 영향과 국제 및 국내환경의 심각한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 〈개〉와 〈고양이〉 싸움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 단편 〈개〉와 〈고양이〉 싸움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 심각한 식량위기에 대처하여

아프리카에서는 2억 4000만명이상이 영양실조에서 시달리고있다. 세계적으로 6초만 어린이 1명이 기아로 죽고 있다.

급속한 인구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부정맥의 확산 등 여러 원인으로 앞으로의 식량공급에 더 큰 난관을 조성할것이라고 한다. 인디아의 경우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는것으로 지적되고있는데 방글라데시에서는 앞으로 25년여간 인구대폭 증가나 대신 농업생산량은 30%나 감소될것으로 예상된다.

사태가 심각해대로부터 국제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되고있다. 지난 10월에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상급회의에서는 식량안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할것을 호소하는 성명이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성원국들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서 중점협력할수행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농산물에 대한 식량무역을 활성화할수행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제적으로 기아와 빈곤을 청산하기 위한 지역적인 노력을 발전된 나라들과 국제기구의 국제적인 제정 및 기술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있다. 최근 지역식량안전보장을 위하여 모던 관개사업이 협력과 자금부조를 신청하였는데 내세우며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 사회이론적안정성위협을 노려

최근 중국에서 당을 강화하며 사회적안정성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일마진 중앙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7기 제5차전원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외신들은 이번 전원회의가 중국이 제11차 5개년 계획을 끝낸 후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건설하는 판권적인 시기에 열린것으로 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을 추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전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최근년간 세계금융위기의 커다란 영향과 국제 및 국내환경의 심각한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핵교섭에서 폭력행위 강요를 구하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생들에게 배에 상으로 실한 예르조브들과를 발표하는데 이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최근년간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데 대해 밝혔다.

# 해일 교해

113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행방불명되었다. 또한 살림집들과 다리가 파괴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해일 교해

113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행방불명되었다. 또한 살림집들과 다리가 파괴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해일 교해

113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행방불명되었다. 또한 살림집들과 다리가 파괴되었다.

【조선중앙통신】